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5년 8월 23일(주일) 제1062호



온누리 공동체 하반기 개강!

8월25일부터 공동체 개강예배 ... 새학기 기도로 시작
러브소나타 론칭, 리더십 새벽기도회, 회복축제 이어져

하반기 공동체 개강예배를 드린다. 8월 25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성북공동체 개강예배를 시작으로 9월 13일까지 이어진다(공동체별 개강예배 일정 3면). 하반기 개강과 동시에 풍성한 행사들이 이어진다. 8월 30일에는 '러브소나타 오아시스' 참가신청을 받는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관 로비에 설치되는 러브소나타 안내데스크에서 신청하면 된다. 양재를 비롯한 캠퍼스는 목회지원실이나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에서 신청하면 된다. 9월 7일부터 26일까지는 온누리교회 리더십 새벽기도회가 각 캠퍼스에서

열린다.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창립 30주년을 축하하고, 향후 30주년을 기도로 준비하자는 취지다. 9월 9일부터 12일까지는 2015 회복축제 'The 기쁨' 이서빙고 온누리교회에 서막 오른다. 성숙을 위한 기쁨을 회복

하기 위해 치유와 회복 분야의 권위자를 초청했다. 30년 임상 경력을 가진 짐 와일드 박사(세퍼드하우스 대표), 국제적 중독과 외상 회복 훈련자 에드 쿠리 목사(국제 약물남용과 중독 연합 사무국장), 25년 경력과 4만 시간 임상 경험을 가진 정신과 전문의 칼 레이먼이 강의한다. 이번 회복축제에서는 기쁨의 회복을 주제로 강의와 '임마누엘 테라피'를 주제로 세미나가 열린다.

회복축제 참가신청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받고 있다. 회비는 7만 원이다. 8월 31일까지 등록하거나 단체(10인 이상)로 접수하면 회비를 2만 원 할인해 준다. 입금계좌: 573-910004-30205 (온누리교회 회복축제) 문의: 러브소나타 서울본부: 02-749-1149 회복축제: 02-3215-3355, 02-570-7522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미주 CGNTV 개국 10주년

감사예배 및 자문위원·후원회 운영위원 위촉

미주 CGNTV가 개국 10주년 감사예배를 드리고 자문위원 및 후원회 운영위원을 위촉했다. 지난 14일 나성영락교회에서 미주 CGNTV 개국 10주년 감사예배 및 자문위원·후원회 운영위원 위촉식이 있었다. 박광철(조이헬로십교회) 목사,

김경진(나성영락교회) 목사 등 목회자 16명이 자문위원으로, 미셸이 넷워드 대표 등 평신도 16명이 운영위원으로 위촉됐다. 이에 앞서 13일에는 CGNTV 본사 리더십과의 오찬모임을 통해 강준민(새생명비전교회), 진유철(나성순복음교

회), 박성근(IA한인침례교회), 이정엽(IA온누리교회) 목사 등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같은 날 미주 CGNTV는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이집트 등 미국 내 다민족(다문화) 기관 및 교회 리더십이 참석한 가운데 한인 기독교 커뮤니티개발협회(KCCD)와 MOU도 맺었다. 알바인 온누리교회에서는 축하음악회가 열렸다.

시니어 아카데미 개강

65세 이상 성도들이 활기찬 노년을 보내는 방법을 배우고 익히는 시니어 아카데미(Senior Academy)가 8월 26일 개강한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두란노홀에서 진행된다. 2학기 서빙고 시니어 아카데미에서는 자기를 찾아가는 여행, 스토리가 있는

가을 음악여행, 재미있는 구원 이야기, 홈 케어법(셀프 건강법), 노년의 건강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양재 시니어 아카데미는 9월부터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부터 드림홀에서 진행될 예정이고, 부천 시니어 아카데미는 9월 3일 개강한다.

*9월 세례식은 추석 관계로 셋째 주에 있습니다(신청은 8월30일까지)
*8월 18~19일 간사수련회 관계로 1062호 신문을 8면 제작했습니다.

후기_ 2015 여름 아웃리치 >> 4-5면 지상강좌_ 초기 한국 개신교의 탄생과 성장 >> 6면 칼럼_ 김현실 목사의 신앙에세이 >> 7면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7~21

“요구하기보다 내가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느끼고 계실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지금 나의 모습에 실망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심각한 죄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분들은 하나님이 지금 나의 모습에 분노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크고 많은 죄를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실 때 사랑이 샘솟고 미소가 가득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이 된 우리의 모습에 실망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분노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실망하고 분노합니다. 그러나 실망과 분노가 있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기 때문에 죄와 허물을 넘어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마음은 사랑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보다 두려움이 더 크게 자리 잡으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성경은 두려움에 대한 상반된 메시지를 줍니다. 한편으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합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두려움은 제거하고, 죄를 미워하는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합니다.

두려움을 벗기고, 담대함을 입히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네가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 숨었습니다.’”(창 3:9-10).

아담은 하나님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 스스로 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지식의 옷, 문화의 옷, 종교의 옷을 입는 것은 자신을 포장해서 두려움을 감추는 것입니다. 때로는 선행을 통해서 죄를 감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옷을 벗겨버리십니다. 죄책감에서 나오는 두려움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도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또 두려움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했습니다. 두려움은 아주 교묘하게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습니다. 문제는 자신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관계의 문제도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두려움이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관계가 파괴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많을수록 미신에 잘 빠집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민감해서 잘 흔들립니다. 그런데 두려움 자체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을 통해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려움은 사랑을 위한 길을 예비한다. 두려움이 없다면 사랑으로 들어가는 문도 없다. 두려움이 약이라면 사랑은 치료이다. 두려움은 사랑으로 인도된다. 사랑이 온전해질 때 두려움은 끝난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우리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한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누구든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완성되면 우리는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행하기 때문입니다”(16-17절).

담대함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쫓을 때 담대함을 가지게 됩니다. 담대함은 뻔뻔함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도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한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누구든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16절).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손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학자 뱁젤은 그리스도의 영적생활의 발전을 네 단계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도 사랑도 없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 없이 두려움만 있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완전히 믿게 되는 단계입니다.

조건 없는, 아낌없는, 값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 주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 주셨습니다”(9-10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압니다”(13절).

하나님의 사랑이 왜 온전한 사랑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신 사랑이 아니라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해 스스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을 버리지 않고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님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전에 조건 없이, 아낌없이, 값없이 그 사랑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 주셨습니다”(10절).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19절).

온전한 사랑은 언제나 먼저 손을 내밉니다. 세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건

적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 받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온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전에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먼저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먼저 사랑을 베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7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11절).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계명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20-21절).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누군가를 향하여 사랑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사랑도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사랑의 근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갑니다. 만약 내 안에 사랑이 말랐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럴 때 안에서 사랑이 흘러나게 됩니다.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먼저 요구하기보다 내가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리기까지

성령님을 보내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큰 지를 우리가 믿고 알고 누리게 하옵소서.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케 되는 담대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온누리M미션 연합세례식 현장.

“예수님의 신부로 살겠습니다”

온누리M미션 연합세례식, 9개국, 41명 세례 받아

“이제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습니다.예수를 증거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지난 16일 온누리M미션 연합세례식 현장에서 네팔 청년 라일이 눈물을 글썽였다. 그는 2013년 한국에 왔다. 타국생활에 적응하느라 힘들 때 온누리M미션이 큰 힘이 되었다. 온누리M미션을 통해 예수도 만났다.

안산 대부도에서 열린 온누리M미

션 연합세례식에서 9개국 41명의 형제자매들이 세례를 받았다. 성인 35명, 청소년 2명, 유아 4명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

중국에서 온 쌍둥이 자매 남남미, 남란실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줘서 고맙다”면서 “고국으로 돌아가 예수님의 신부로 살겠다”고 고백했다.

김창욱 전도사(2000선교)는 “이날

세례를 받은 이주민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 생명으로 부활해 새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고 축복했다.

온누리M미션 세례식은 이주민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 고국으로 돌아가 가족과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겠다는 결단과 각오가 담겨 있다.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전도폭발의 밤’ 행사 개최

8월 24일 오후 6시 서빙고 두란노홀

올해 10주년을 맞는 전도폭발훈련에서 ‘전도폭발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 8월 24일 서빙고 두란노홀에서 오후 6시에 열린다.

전도폭발의 밤 행사는 지난 10년 동안 전도폭발훈련을 수료한 20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 교제하는 장이다. 찬양과 기도, 간증과 축하공연, 설교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도폭발훈련은 성경적 제자훈련을 통해 평신도를 전도자로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이다. 1~4단계 훈련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전도방법을 배울 수 있는 훈련이다. 하반기 전도폭발훈련은 주간반(화)과 저녁반(수)로 나뉘어 9월에 개강할 예정이다. 문의: 02-3215-3214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정병두 명예장로 천국환송예배

지난 17일(월) 오전 7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정병두 명예장로 천국환송예배를 드렸다. 정병두 장로는 지난 14일 향년 79세 일기로 소천했다. 유가족으로 부인 문혜란 권사, 자녀 정진희

(장녀)·이순명(사위), 정윤희(차녀)·장경순(사위), 정문희(손녀)가 있다.

조화진 장로는 정병두 장로를 “기도 많이 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열정이 대단했던 분”이라고 기억했다.

성찬용 포도즙 제조

서빙고 8월24~25일, 양재 31일~9월1일

성찬용 포도즙을 제조한다. 서빙고는 8월 24일과 25일, 양재는 31일과 9월 1일에 한다. 이에 따라 서빙고 한식

당은 25일 아침부터 26일 점심까지, 양재 한식당은 9월 1일 아침부터 9월 2일 아침까지 이용할 수 없다.

성찬용 포도즙 제조에 권사임직 대상자와 권사들은 반드시 참가해야 한다.

서빙고 복인수 간사(02-3215-3533)
양재 정애린 간사(02-570-7433)

/ 정현주 기자

건강을 지키는 창조질서 강좌 개설

한국창조과학회가 오는 28일 오후 1시30분 서빙고 콘서트홀에서 특별한 건강강좌를 연다. 주제는 건강을 지키

는 창조질서다. 이은일 장로(고려대의과대학 교수)가 강의한다. 참가비 1만 원. 문의: 장요한 간사(02-419-6465)

〈생명의 삶〉일본어중급반 참가자 모집

일본어예배에서 〈생명의 삶〉과 함께 하는 일본어중급반 수강생을 모집한다. 기본적인 일본어 회화가 가능한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9월 1일부터 11월 24일까지 매주 화요일 서빙고 Acts29홀(선교관 1층)에서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된다. 문의: 한행자 권사 (010-7738-3604)

양재 화요기도학교 수강생 모집

양재 화요기도학교가 9월 8일 가을 학기 개강을 앞두고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양재 화요기도학교 주제는 ‘힐링기도Ⅱ’다. 내면의 상처와 억압된 인과관계를 알아보고 치유 받는 과정이 11주 동안 이어진다. 이정선 사

모, 정태기 교수의 특강도 준비되어 있다. 양재 화요기도학교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양재 온누리교회 화평홀에서 열린다. 회비는 3만 원. 신청은 iSchool에서 하면 된다. 당일등록 가능. 문의: 강상혁 간사(02-570-7311)

■ 온비아(온누리 BEE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과정	개강 날짜	시간
온비아 1년 과정 월요일 오전반	8/31	10:00~12:30
온비아 1년 과정 월요일 저녁반	8/31	19:30~22:00
온비아 1년 과정 목요일 오전반	9/3	10:00~12:30
온비아 1년 과정 토요일 오전반	9/5	9:30~12:00
온비아 마가복음 화요일 저녁반	9/1	19:30~22:00

등록: 온누리교회 iSchool, www.beeukorea.org, 문의: 02-822-9480

■ 2015년 하반기 공동체 개강예배 일정 ■			
날 짜	공동체	장소	시간
서 빙 고			
8월 25일	성북	한동홀	오후 6시
8월 27일	서대문	두란노홀	오후 6시
8월 27일	여의도	한동홀	오후 6시
8월 28일	신용산	두란노홀	오후 6시
8월 28일	이촌	한동홀	오후 6시
8월 28일	한강	시온홀	오후 6시
8월 29일	양천	동양생명인재개발원	오후 4시
8월 30일	북누리	북누리비전센터	오후 5시 30분
9월 1일	OCC	두란노홀	오후 6시
9월 1일	마포	한동홀	오후 6시
9월 1일	용산	시온홀	오후 6시
9월 1일	중종로	EM 홍보관	오후 6시
9월 3일	강촌	한동홀	오후 6시
9월 3일	이수	비전홀	오후 6시
9월 3일	광명	광명영광교회	오후 7시
9월 3일	노원	상현교회	오후 7시
9월 4일	가정사역	두란노홀	오후 6시
9월 4일	성동광진	한동홀	오후 6시
9월 4일	영등포구로	시온홀	오후 6시
9월 4일	특초	비전홀	오후 6시
9월 5일	고양은평	진관교회	오후 5시 30분
9월 5일	김포	김포태광교회	오후 12시
9월 6일	일산	일산비전센터	오후 4시
9월 6일	동작	묵상의 집	오후 3시
9월 8일	관악금천	두란노홀	오후 6시
9월 8일	동대문중랑	한동홀	오후 6시
9월 11일	서빙고	시온홀	오후 6시
9월 11일	천양공동체	다일공동체 수련원	오후 6시
9월 12일	강서	김포전원교회	오전 10시30분
날 짜	공동체	장 소	시 간
양 재			
8월 26일	과천의왕	온유홀	오후 8시
8월 26일	산본안산	드림홀	오후 8시
8월 26일	강남B	화평홀	오후 8시
8월 28일	양재	화평홀	오후 8시
8월 28일	서초D	드림홀	오후 7시30분
9월 1일	강남A	온유홀	오후 8시
9월 1일	서초C	드림홀	오후 8시
9월 2일	서초A	화평홀	오후 7시20분
9월 2일	서초B	기쁨홀	오후 7시30분
9월 2일	분당B	드림홀	오후 7시
9월 4일	강남C	화평홀	오후 8시
9월 4일	Point5	도곡 온유홀	오후 8시15분
9월 6일	강남D	청평 컨벤션리조트	오전 9시30분
9월 8일	안양평촌	온유홀	오후 8시
9월 11일	송파	드림홀	오후 7시
9월 13일	푸른누리	온유홀	오후 4시
-	분당A	다락방별진행	-
캠 퍼 스			
9월 4일	부천 화평	경찬홀	오후 7시
9월 11일	민음	경찬홀	오후 7시30분
9월 11일	소망	드림홀	오후 7시30분
9월 11일	사랑	예곡홀	오후 7시30분
9월 11일	희락	두란노홀	오후 7시30분
8월 27일	수원 동누리/북누리	4층 비전홀/경찬홀	오후 7시
9월 4일	수원 서누리/남누리	4층 경찬홀/비전홀	오후 7시
9월 11일	대전유성 중서동누리	6층 본당	오후 7시30분
9월 4일	남양주 A,B,C	교회 본당	오후 8시
9월 4일	인천 민음, 소망, 사랑	교회 본당	오후 8시
9월 4일	강동A	강동A 10층 사랑홀	오후 8시
	강동B	강동B 12층 본당	오후 8시
9월 6일	양지 공동체	태성고등학교	오전 11시

일산공동체

아프리카 D국,
아프리카 S국 아웃리치박호준 성도
(일산공동체)

일산공동체는 2012년 ‘블레싱 사하라’ 이후 아프리카 지역에 의료선교팀을 파송하고 있다. 지난해 에볼라가 발생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해마다 의료선교팀을 파송했다. 매해 의료선교팀을 파송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거리가 멀고 현지 상황도 여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의료선교팀원이 늦게 확정됐다. 예년에 비해 준비기간이 짧고 기도의 양도 턱없이 부족했다. 마음이 불안한 상태로 출발했다.

7월 25일 토요일 밤 아프리카로 향했다. 경유지인 이스탄불 공항에서 QT를 하면서 온전한 순종을 명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다. 다음날 아프리카 D국에 도착했다. 매년 약 품반입을 허가받는데 무리가 없었는데 올해는 갑자기 당국이 약품 반입을 금지했다. 통관 중에 약품을 모두 압수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출발 직전 그 소식을 듣고 일산공동체 중보기도팀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온 상황이었다. 집을 찾아 세관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다. 우리 바로 앞에서 보파리 장사를 하는 현지인 아주머니의 집이 문제가 되어 모든 세관

원이 그 아주머니에게 간 사이 우리는 검사도 받지 않고 세관을 통과할 수 있었다.

다음날 의료사역 채비를 하고 아프리카 S국으로 향했다. 아프리카 S국은 우리나라와 비수교국이라서 출입국사무소에서 비자를 받아야 입국이 가능했다. 그런데 우리 팀원 10명 중 6명이 비자를 받지 못했다. 우리를 초청한 현지 NGO 단체에서 출입국사무소 책임자를 모셔왔다. 그분의 배려로 여권을 맡기고 무비자 입국을 할 수 있었다.

의료사역을 무사히 마치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전날 비자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시 비자를 받아야 아프리카 D국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6명이 비자 발급처로 향했다. 두 사람은 무사히 통과했는데 세 번째 사람이 비자를 발급받는데 사무실에서 소동이 났다. 우리 팀원 두 명이 사무실에 갇힌 채 문을 잠가 버리는 상황이 발생했다. 결국에는 다시 비자 발급 절차가 재개되어 무사히 빠져나왔지만 이질한 순간이었다.

사막 한 가운데 있는 유목민 마을에서 의료사역을 진행했다. 모든 마을 청년들이 무장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다행히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를 지도자로 생각하고 있어 우리에게 호의적이었다. 마을 세 곳을 방문하고 돌아와 선교사가 세운 학교에서 잠을 청했다.

다음 날은 어린이 사역을 하는 날이었다. 매니큐어, 바랍개비, 복음팔찌, 그림 그리기 사역 등을 준비해 갔다. 매니큐어와 바랍개비는 엄청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사역을 하고있는 모습.

인기가 있었다.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모두 즐겨워했다. 복음팔찌는 팔찌를 만들며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인데 오재열 형제가 잘 진행해주어 큰 감동을 주었다. 나는 한 자매와 함께 동화구연을 진행했다. 동화 내용이 ‘예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내용이었는데 통역하는 선교사님 이야기는 이 곳 아이들은 사랑이라는 개념을 잘 모른다고 했다. 다행히 책 내용이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이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했다. 동화구연이 끝나고 선교사님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물었을 때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대답했다. 가슴이 뭉클했다.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돌아서는데 비보가 전해졌다. 3년째 아웃리치팀 회계로 섬기고 있던 집사님의 모친상 소식이었다. 팀원들 모두가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그 집사님은 담담하게 그 소식을 받아들였다. 아웃리치와 있는 자신을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라며 오히려 우리를 위로해 주었고 팀원들과 현지 선교사들과 함께 위로예배를 드렸다.

돌아보면 육체적으로 정말 힘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입에는 감사가 가득했다.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다시 부르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관악금천공동체

충남 청양 아웃리치

이정수 권사
(관악금천공동체)

올해 관악금천공동체 아웃리치는 충남 청양군 남양면에 위치한 ‘생명나무 그리스도교회’에서 실시했다. 86명의 차세대와 가족들이 함께한 귀한 자리였다. 1년 전 우리 공동체는 한 곳을 집중 공략하는 아웃리치를 하자고 다짐했다. 그 말에 힘입어 관악금천공동체와 생명나무 그리스도교회는 특별한 인연을 맺었다. 앞으로 5년 동안 아웃리치를 계속하기로 했다.

생명나무 그리스도교회를 담임하는 김계하목사님은 10년 전 아무 연구도 없는 청양군으로 이주했다. 김 목사님은 다 쓰러져가는 폐교를 사들여 그곳을 교회로 개척했다. 이 땅을 복음화 된 신앙공동체로 만들겠다는 열정 하나로 시작된 사역이었다.

생명나무 그리스도교회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빵굽기 사역과 영농 조합, 야나비다 운동 등을 하고 있다. 이 모든 사역들은 지역 주민들이 한 번이라도 교회 땅을 밟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목적이고, 취지다.

퍼즐처럼 맞춰진 헌신들..

아웃리치 장소에 도착했다. 김 목사님으로부터 생명나무 그리스도교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짐을 풀었다.

한낮 기온이 35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이어졌다. 농촌 어른신들이 날씨가 뜨거워 일손을 놓는 그 시각 우리의 사역이 시작됐다. 어른신들이 다위를 피해 쉬고 있는 마을화판과 정자나무 아래를 찾아가 신나게 복음을 전했다. 어른신들께 복음을 전하면서 ‘그동안 미안한 열정으로 전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이튿날 새벽 6시 30분 발로 향했다. 일손 돕기 사역을 위해서였다. 고추를 따고, 한약재로 쓰이는 맥문동(麥門冬)꽃도 따다. 이른 시간 뜬 해가 뜨거워지기 전에 작업을 해야 했기 때문에 새벽잠을 설치며 주민들을 도왔다. 도시 사람들이 새벽잠을 깨는 것은 익숙하지 않은 일이었지만 무척 의미있는 사역이었다. 미용팀의 손길도 바빴다. 순서를 기다리는 주민들이 지루하지 않게 고추를 들어주고, 달달한 간식도 제공했다. 이미용 봉사하러 복음을 전하느라 실 틈이 없었다. 건강들과 가족들에게 예방접종을 한 수의팀의 활약도 돋보였다.

식당팀은 마을잔치 준비로 한창이었다. 뜨거운 불 앞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마을잔치를 준비했

86명의 용사들과 함께



봉사 시작 전 기도로 준비하고 있다.

다. 45명의 전도 대상자와 봉사자들의 식사를 준비해야 했기 때문에 매우 분주해 보였다. 이번 마을잔치에서는 특별한 순서도 선보였다. 공동체 성도의 인도로 마을 주민들을 위한 웃음치료가 막 올랐다. 웃음치료에 대한 마을 주민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다. 신나고 유쾌한 시간이었다.

이찬우 목사님은 주일설교를 통해 현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 무엇보다 이번 아웃리치를 위해 1년 전부터 중보기도를 시작한 중보팀의

활약을 잊을 수 없다. 이번 관악금천공동체 여름 아웃리치는 이 모든 헌신들이 퍼즐처럼 맞춰져 해낼 수 있었다. 청양땅에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관악금천공동체 86명의 용사들과 함께 할 수 있어 뜻깊었다. 생명나무 그리스도교회 김계하목사님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이곳은 1년에 한 번 찾아오는 아웃리치가 아닙니다. 이곳을 고향처럼 생각해 주셔서 자주 찾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재공동체

영양 사동교회 아웃리치

유한순 성도 가족
(여호수아4순)

올해 아웃리치는 시작 전부터 기대가 컸다. 자녀와 함께 산골교회를 섬기는 아웃리치가 될 것이라는 순장님의 말씀을 듣고 나도 모르게 설레었다. 아이들에게 별이 쏟아지는 시골의 밤하늘을 보여주는 삶은 마음이 굴뚝같았다. 양재공동체의 아웃리치 장소 후보는 강원도와 경북 영양이 거론됐다. 강릉은 내가 가고 자란 고향이고, 경북 영양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고향인 영주와 가까운 곳이다. 어디가 됐든 나에게 친근하고 추억이 서린 곳이라 좋았다.

양재공동체 아웃리치는 경북 영양으로 결정됐다. 나는 집에 있고 싶다는 아이를 외할머니 고향 가까운 곳에 가는 거라고 설득했다.

깎아지른 절벽과 산허리까지 뻗뻗하게 솟아오른 나무들, 구불구불한 산길을 달렸다. 속이 울렁거린다면서 말미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는 곳이 정말 산골짜기라는 것을 실감했다.

드디어 작은 마을에 다다랐다. 경북 영양 사동교회는 마을 중앙에 자리하고 있었다. 우리를 태

운 커다란 관광버스가 들어갔더니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시골교회였다.

교회에 도착하자 넓은 종탑이 눈에 들어왔다. 43년 전 어느 소녀와 엄마가 함께 이 교회를 짓기 위해 베푼 한 장 한 장을 낚았다고 한다. 그렇게 교회를 세운 소녀가 지금은 할머니가 됐다.

지금 사동교회가 세워진 자리는 과거에 절이였다. 보사지루에 담긴 성경을 읽은 스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절터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 가바로 사동교회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떠나 성도가 5명 남았다고 한다. 우리의 방문이 쓸쓸하게 변해버린 사동교회에게 활력을 불어넣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아웃리치에 임했다. 우리들은 다양한 팀을 구성해 사동교회와 마을 주민들을 섬겼다. 방충망팀, 전기보수팀, 발마사지팀, 여름성경학교팀, 섬김팀으로 나뉘었다. 방충망팀과 전기보수팀은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오래됐거나 고장 난 전등과 방충망, 전기시설을 보수했다. 더운 날씨에 고된 노동을 수반해야 하는 작업이었다. 힘겨운 장정 세 사람이 달리붙어야 들어진 창틀에 방충망을 끼울 수 있었다. 모든 팀원들이 온마음과 힘을 다해 웃음을 잃지 않고 정성을 쏟았다.

발마사지팀은 어르신들의 발을 주물렀다. 세월이 느껴지는 주름과 굳은살로 뒤덮힌 발을 만

절이 교회가 된 사동교회에서



마을 전도잔치에 오신 어르신들에게 아이들이 흥겨운 찬양과 율동을 선보이고 있다.

지며 어르신들의 마음도 읽었다. 그렇게 발마사지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여름성경학교에서는 도시 아이들과 산골 아이들이 만났다. 초록 들과 산을 배경으로 하는 물총놀이, 강에서 하는 물놀이는 정말 재미있었다. 한 폭의 그림 같았다. 마을잔치도 빼놓을 수 없다. 마을잔치에 몇 명이나 오실까 걱정했다. 밥그릇과 국그릇은 얼마나 준비해야 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태였다. 그

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해 두셨다. 우리는 마을잔치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담은 음식을 만들어 대접했다. 잔치에 꼭 오셔야 할 어르신들이 오셨다. 발마사지를 받으며 교회 나오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난생 처음 교회에 온 할머니도 계셨다.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굳어졌다. 믿음의 확신을 깨닫도록 이번 아웃리치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갈렙공동체

함양 광월교회 아웃리치



강신희 자매

이번이 경남 함양 광월교회 세 번째 방문이다. 답사까지 합치면 아마 친척집보다 많이 방문했을 것이다. 경남 함양 광월교회 최성봉 목사님은 작년에 새로 오셨다. 마침 지난해 갈렙공동체 아웃리치 기간이 최성봉 목사님이 부임한 날이었다. 이래저래 광월교회와 갈렙공동체는 인연이 깊다. 최 목사님은 대전에서 목회하다 갑자기 산골짜기 작은 교회로 오셔서 힘들 법도 한데 그래 보이지 않았다. 청년들이 휴가도 반납하고 와서 봉사하는 것 자체만으로 눈물이 난다며 도리어 우리에게 고마움을 표현하셨다.

여름은 어딜 가나 답지만 경남 함양은 유독 더웠다. 햇볕 아래 있으면 견디기 힘들 정도였다. 그 열기를 참아하며 이곳에서 여름사역을 시작하지 벌써 3번째다. 올해는 어떤 사역을 해야 할지 고민했다. 최 목사님은 전도사역과 지역 아이들이 경쟁이 아닌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수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셨다. 교회 벽화가 많기 때문했고, 교회 바닥에 돌을 까는 작업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셨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부담 없이 휴가 가는 느낌으로 아웃리치를 오라고 하셨다.

할 일은 많은데 부담 없이 오라고 하시니 더 불안했다.

본격적으로 아웃리치를 준비하면서 더 불안해졌다. 사람도, 재정도 부족했기 때문이다. 결국 하나님만 붙잡았다. 그렇게 의지하니 마음이 평안해졌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도 느낄 수 있었다. 멘토님이 페인트를 후원해 주셨고, 한 청년은 자기가 군대에서 벽화 전문이었다면서 꼭 돕고 싶다고 자원했다. 일행을 태우고 움직일 차량이 부족해서 아웃리치 직전까지 광고를 했는데 어느 멋진 자매님께서 자원해 주셨다. 그녀는 우리를 데려다주고 직장 때문에 바로 올라가야만 했다.

올해 아웃리치에는 가장 적은 인원이 참가했다. 인원이 적다보니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 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더욱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모두 멀티플레이어가 되어야 했다. 전도, 어린이사역, 벽화그리기, 마을잔치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축조전도집을 찾아가서 전도하는 방법을 하는데 나는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많았다. 속으로 집에 아무도 없기를 바라면서 어느 집으로 들어갔다. 대청마루에 할머니 세 분이 쉬고 계셨다. 그분들은 우리를 손자녀처럼 맞이하듯 반겨주셨다. 그분들과 여러 이야기를 나누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중 두 할머니는 부끄러워하면서도 영접기도문을 따라 읊으셨다. 그런데 한 할머니가 갑자기 귀가 잘 안 들리고, 글도 안 보인다고 하셨다.

8월의 멋진 어느 날



마을 잔치에 오신 어르신들이 맛있게 음식을 드시고 있다.

“할머니, 같이 천국 가야죠”라면서 다시 권하자 그제야 영접기도문을 읽고 아멘을 외치셨다. 그리고는 갑자기 노래를 부르셨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요.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불교집안에서 자랐다고 하시던 분이 기도문을 읽고 나서 12살 때 배운 노래가 생각난다며 찬양을 부르셨다. 그 할머니는 마을잔치에도 오셨다. 내 손을 잡고 고맙다고, 잘 먹고 간다고 인사하던 모습이 잊히지 않는다.

주일에 배를 드리는데 교회가 너무 더워 목사

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빨리 서울 가서 아이스크림을 마시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더운 곳에서 최 목사님과 성도들은 매주 예배를 드리겠지’라는 생각과 함께 죄송스러운 마음이 밀려왔다. 그렇게 뜨거웠던 우리의 여름 아웃리치가 끝났다.

마지막으로 광월교회 기도제목을 공유하고 싶다. 마을이 워낙 크다 보니 성도들을 교회로 모시고 올 차량이 필요하다. 소형차 한 대로 몇 번에 걸쳐 모셔오고 있다. 광월교회에 승합차가 한 대 생겼으면 좋겠다.

초기 한국 개신교의 탄생과 성장



이재근 교수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
광교산울교회

한국 교회사는 거대한 역사다. 같은 한자 문화권에 유교 문화권인 중국과 일본을 비교해보더라도 한국의 기독교 역사는 짧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국 중에서 한국만 기독교 부흥이 일어났다.

중국은 1807년 로버트 모리스 선교사에 의해 개신교가 전파됐다. 일본은 1859년 채닝 윌리엄스와 존 리긴스 선교사에 의해 개신교가 전해졌다(이보다 300년 전에 가톨릭이 들어오기 했으나 부흥하지 못함). 조선은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에 의해서 처음 개신교가 들어왔다(1884년 알렌이 조선에 들어왔으나, 그는 미공사관 의사 신분으로 들어옴).

조선에는 중국보다 80년, 일본보다 30년 늦게 개신교가 들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중국과 일본에는 없는 기독교 부흥이 일어났다. 1920년대 당시 선교사들에게 화자되던 말이 있었다.

“100년 후 (아시아에서) 두 나라 정도는 기독교 국가가 될 것이다. 그 나라는 바로 필리핀과 조선이다.”

필리핀은 스페인이 식민 지배를 하면서 가톨릭으로 강제 개종을 시켜 전체 인구의 대다수가(80% 이상) 가톨릭 신자다. 강제성을 띤 필리핀과 달리 한국은 자생적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성장시켰다. 한국 교회는 어떻게 동양에서 두 번째로 큰 기독교 국가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을 정도로 부흥하게 되었을까? 왜 한국만 어마어마한 기독교 부흥이 일어났는가?

선교사들도 몰랐던 나라 조선, 동양에서 두 번째로 큰 기독교 국가가 되기까지

19세기 후반, 외국인 선교사들에게 조선은 ‘Hermit Kingdom(은자의 나라)’이었다. 알려지지 않은 나라였다. 그래서 중국과 일본에 비해 개신교가 들어온 시기가 늦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기독교는 빠르게 확산됐고 성장했다. 사상 유례 없는 부흥을 이룩했다. 그 이유를 8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나라의 운명이 절체절명에 처한 상황이라는 것 때문에 기독교를 대안으로 수용한 사람이 많았다. 당시 조선은 나라 전체가 암울하고 혼란한 시기였다. 강화도조약(1876년, 일본의 강압 아래 맺어진 최초의 불평등조약), 임오군란 및 제물포조약(1882년, 임오군란으로 발생한 일본측 피해보상을 다룬 조약), 갑신정변(1884년), 동학운동·갑오개혁·청일전쟁(1894년, 조선 지배를 둘러싸고 중국과 일본이 벌인 전쟁), 을미사변(1895년, 일본 낭인들에 의한 명성황후 시해 사건), 아관파천(1896년, 명성황후 시해 후 일본군에 위협을 느낀 고종이 러시아 공관으로 임시 피신), 을사늑약(1905년, 조선의 외



소래교회를 방문한 언더우드 선교사 가족 모습. 소래교회는 한국 교회 첫 자생교회다.

“중국과 일본보다 뒤늦게 개신교 전파 되었지만, 암울한 시대 기독교가 조선의 소망이 되었다. 버린 돌 같았던 상황이 역설적으로 기독교 부흥 이뤄내”



최초 한글 성경(1882년, 로스 역 요한복음)

교권박탈과 통감부 설치한 조약, 사실상 일본의 식민지가 됨) 등 조선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가 되어가고 있었다. 역사상 가장 암울한 시기였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던 그때 개신교가 들어왔다. 개화파 사람들의 대다수가 기독교인이었다. 그들은 소망이 없는 현실에서 유일한 대안이 기독교라고 생각했다. 서구 열강을 지배하던 정신과 가치가 바로 개신교라고 판단하고 이를 수용한 것이다. 또 교육에서 벗어난 평민들과 여자들에게도 기독교는 자신들의 처지를 달랠 수 있는 대안이 되어 주었다.

둘째, 기독교가 들어와 성장할 수 있었던 저변이 있었다. 자생적 기독교 공동체와 성경번역이 이미 이루어져 있었다. 중국의 경우 선교사가 중국에 들어와 한문으로 번역된 성경이 만들어지기까지 약 30년이 걸렸다. 그러나 조선은 1885년 개신교 선교사가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모국어(한글)로 된 성경이 있었던 유일한 나라다. 1879년부터 3년간 번역한 끝에 만주 심양에서 최초로 성경이 나왔다. 바로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1882년, 로스역). 일본 유학 중 한문성경을 읽고 화심한 이수정 선교사가 한글로 번역해 출판했다(1883년, 신약 마가전 복음서). 이는 미국 선교사들의 내한을 앞당겼다. 1885년 4월 제물포로 입국하던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의 개방 안에는 이 마가복음이 들어있었다. 또한 조선에는 ‘소래교회’라는 한국 교회 첫 기독교 공동체가 이미 1883년에 있었다.

셋째, 기독교 전달자와 제국주의 침략자들이 기독교 수용에 거부감을 느낀 것과 달리 한국은 제국

주의 침략자가 서구 선교국이 아니라 일본이었다.

중국에서는 1839년~1842년, 1856년~1860년에 걸쳐 영국과 아편전쟁이 일어났다. 아편을 피는 영국 상인들은 중국어 통역관으로 선교사들을 고용했다. 상인들 옆에 선교사들이 있었다. 중국어를 잘 하고 중국에 대해 잘 알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선교사들은 통역사로 일하면서 모자라는 선교비를 충당해야만 했다. 이런 선교사들의 이중적 직업이 중국인들에게 오히려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켰다. 예수를 전하는 그 입으로 아편을 판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제국주의와 기독교가 한 패라고 여겼다. 이는 1894년 의화단운동으로 인해 외국 선교사 220명 이상, 중국 기독교인 32000명 이상 살해되는 등 반(反)기독교 운동이 벌어진 계기가 됐다.

일본도 마찬가지였다. 일본은 개항 초기 ‘동도서기(東道西器, 동양의 도덕윤리·지배질서를 그대로 유지한 채 서양의 발달한 기술을 받아들여 부국강병을 이룬다)’ 사상을 고수했다. 미국의 무력에 두려움을 느낀 일본은 개항 후 신식무기들과 문물을 받아들였고, 메이지유신을 이뤄 막부를 해체했다. 신식으로 군대를 정비한 일본은 조선을 식민 지배 하기에 이르렀다.

중국과 일본에게는 제국주의 침략자와 기독교 전달자가 동일주체로 여겨진 반면 조선은 제국주의 침략자가 서구 선교국이 아니라 일본이었다. 오히려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조선인들을 도운 건서양의 선교사들이었다. 병원과 학교를 세워 민중의 질병을 치료하고 개화시켰다. 그들에게 교육받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훗날 독립운동가가 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넷째, 한국은 기독교의 유입을 막을만한 강력한 종교체계가 당시 붕괴되어 있었다. 게다가 한국 민족은 외래 종교에 대한 수용도가 역사적으로 늘 다른 나라에 비해 높았다.

중국은 도교와 불교 사원이, 일본은 신사(神社)와 사찰이 어느 곳에 가도 즐비한 곳이다. 반면 구한

말 조선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도시 안에 거대한 절이 하나도 없음에 의아해했다. 이는 조선시대 숭유억불(崇儒抑佛) 정책으로 인해 절이 모두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거대 사찰과 신사로 인해 심리적 위축과 절망을 느낀 중국과 일본의 선교사들과 달리, 조선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종교적으로 진공상태에 빠진 조선인들의 정신에 복음을 전했고 이는 아주 유효했다.

선교사들 간 협력과 연합이 만든 작품, 교파 갈등 등 부정적 시행착오 겪지 않았다

다섯째,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 간 협력과 연합이 잘 되어 서로 싸우는 부정적인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다. 한국으로 들어오는 선교사들은 중국이나 일본을 거쳐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다. 두 나라에서 겪은 시행착오를 답습하지 않고 한국 상황에 맞게 적용했다.

아펜젤러(감리교)와 언더우드(장로교)는 미국 동부에서 태평양을 건너 일본을 거쳐 조선으로 들어오는 3개월간을 같이 했다. 이 기간 동안 조선 선교에 대해 수많은 이야기들을 나눴고 연합선교 뜻을 정했다. 그렇게 1885년 4월 5일 감리교와 장로교 선교사가 조선에 동시 입국했다. 또한 당시 미국은 남북전쟁 발발 후 남북간 대립이 극에 달해 있을 때였다. 미 남장로교와 북장로교도 남보다 못한 사이라 함 악화일로에 있었다. 그러나 조선 선교에 있어 두 교파는 깊은 원한을 뒤로 하고 협력했다. 중국 선교처럼 팽파떡기 식이 아니라, 선교지 분할 정책을 펴 교파와 국가가 대립하는 일을 막았다.

여섯째, 민족주의가 반기독교 운동으로 표출되었던 중국 등과는 달리, 한국 민족주의는 기독교와 결합된 형태였다. 그 대표적인 예가 1919년에 일어난 31운동이다. 당시 조선의 기독교 인구는 전체 인구의 15% 정도로 낮은 수치였다. 그러나 31운동에 참여한 사람들 중 17~22%가 기독교인이었다. 여성은 66%에 달했다. 31운동 후 일제로부터 가장 많은 보복을 당한 것도 교회와 기독교인들이었다. 한국의 민족주의가 가는 길에 기독교가 함께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곱째, 다른 나라에 없는 유례없는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 1900년대 한반도는 기독교 대부흥이 일어났다. 1907년 평양대부흥이 바로 그것이다. 그에 비해 중국은 산둥반도나 만주 지역 등 국지적으로만 부흥이 있었고, 일본은 부흥 역사가 없다.

여덟째, 자립·자전·자치를 빠른 시간 안에 가능하게 한 성경적이고 탁월한 선교정책(네비우스 선교정책)이 초기부터 시행되었다. 중국 선교사였던 존 네비우스 선교사가 자신의 중국 선교를 토대로 제안한 선교정책이다. 조선에 들어와 있던 젊은 선교사들은 이를 당시 상황에 적용했고, 한국의 기독교는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토착 교회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다. 또한 대부흥 이후 한국 개신교는 김선주 목사, 김익두 목사 등 외국인이 아닌 한국인 부흥사를 배출해냈다. 외국인 선교사가 주체가 아니라 한국인 목사가 리더십으로 세워지게 된 것이다. 개신교가 전파된 지 불과 20~30년 만에 자립, 자전, 자치를 이뤄낸 것이다.

이 모든 요소가 각각 혹은 복합적으로 작용해 한국 교회의 부흥을 이끌어냈다. 여기에 구한말과 일제강점기라는 배경이 작용한 것도 빼놓을 수 없었다.



장로칼럼 박구병 장로(관악금천공동체)

성경은 안전관리 원조 지침서

요즘 국내외적으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많은 인명과 물적 피해를 내고 있다. 기업은 생산에 앞서 안전관리를 우선하고, 국가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안전관리를 잘 하자는 운동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안전관리 부실로 사고가 나면 경제적 피해는 물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가정의 불행을 초래한다. 한 매스컴에서 2014년을 ‘너무 아팠던 한 해’라고 했다. 어디 2014년뿐이겠는가.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참사, 판교 공연장 환기구 뚜껑 붕괴, 공장 불산 누출, 리조트 지붕 붕괴, 세월호 침몰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었다. 안전사고는 외국에서도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중국 텐진에서 일어난 폭발사고는 위험물질 관리와 사고발생 시 초동조치의 중요성을 깨우쳐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나는 30여 년 동안 건설현장과 시설물 안전정책분야 업무를 수행해 왔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안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마치 나의 노력을 조롱이라도 하듯 유사사고가 재발하고 있다.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원인을 알 수가 없다. 지금까지의 안전관리에 대한 반성과 변화가 절실한 실정이다. 전문가의 연구결과와 서적을 찾아봐도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없었다. 전문가로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혜가 절실하게 필요하던 중에 성경이 안전관리의 원조(元祖)이며, 안전관리의 기본정신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네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신 22:8).

지금까지 건설현장과 시설물의 안전관련 법적 조문(條文)의 원조를 함무라비 법전(목수가 집을 짓다가 무너져 주인의 딸이 죽으면 목수의 딸을 죽인다)으로 알고 가르치고 있었다. 함무라비 법전은 안전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사고 당사자에게 돌리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인 신명기 말씀을 발견한 후로는 성경이 안전관리의 원조 지침서라는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때부터 안전관련 정책 제언과 강의를 할 때마다 신명기 말씀을 빌려 ‘안전관리의 기본정신은 위험을 모르는 안전 약지를 배려하는 사랑의 정신과 더불어 사업주가 안전관리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공감해 주었다. 안전정책의 방향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게으른즉 서가레가 내려왔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전 10:18)는 말씀을 통해 시설물 유지관리 요령도 배울 수 있었다. 3400년 전의 솔로몬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지혜의 메시지다. 시설물 안전관리와 유지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행동으로 직접 실행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성경 말씀에 근거해 주변 환경과 시설물 안전관리 및 유지를 실천한다면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위험을 모르는 타인의 안전을 먼저 배려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삶의 지침이며, 바라시는 모습일 것이다. 기독교적인 안전문화가 정착될 때 하나님의 살로몬이 이 땅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 믿는다. 성경 말씀 따라 교회, 가정, 직장에서 안전관리의 주도자가 되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한다.



권사칼럼 김경자 권사(서빙고공동체)

사랑은 순종, 섬김은 눈물과 희생 그리고 정성

나는 서빙고공동체 대표권사로 4년째 섬기고 있다. 다른 공동체 대표권사의 직무도 고되지만 서빙고공동체는 더 고되다. 서빙고공동체 대표권사직이 특별히 합려운 이유는 15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오랜 전통 때문이다. 서빙고공동체는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방학도 없이 15년 동안 기도모임을 하고 있다. 서빙고공동체 대표권사는 매주 1시간 반 이상이 기도회를 인도해야 한다. 이 기도모임에는 매주 꾸준히 20~25명이 참석하고 있다. 평균 70~80세 권사님들로 구성되어 있다. 서빙고공동체에는 교회 초창기부터 하용주 목사님을 가까이에서 도운 지체들이 많다. 온누리교회를 지극 정성으로 섬기는 총기 넘치는 권사님들도 정말 많다. 그렇기 때문에 서빙고공동체 대표권사 직분을 감당하는 자체만으로도 부담스럽다.

2년 동안 섬김을 마치고 무거운 짐을 벗는 것이었다. 그런데 상황이 예상치 못하게 흘러갔다. 목사님, 리더십, 권사님들 모두 한 마음으로 나더러 서빙고공동체 대표권사직을 한 번 더 해 줄 것을 권유했다. 나는 도망가고 싶었다. 그동안 이 무거운 짐을 벗을 날만 손꼽아 기다렸기 때문이다. 이 일을 감당할 자신도 없었다. 나처럼 부족한 종이 섬길 지리가 아닌 것 같았다. 건강상의 이유로, 능력의 이유로, 규정상의 이유로 못하겠다고 했다. 너무 힘들고 자신이 없다면서 극구 사양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방향과 달리 또 다시 이 직분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은 내가 순종이라는 사

랑의 씨앗을 그자리에서 받기를 원하셨다.

권사기도회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수 있는 모임이다. 나는 이 기도모임을 준비하고 인도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되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말씀과 기도제목까지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이다. 섬김을 시작하지 어느새 3년하고도 8개월이 지나고 있다. 가장 감사한 것은 눈감고 정성껏 찬양하는 권사님들을 보는 것이다. 그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영혼들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실까. 때로는 눈물도 닦아주시고, 기쁨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있다.

기도모임에 참석한 권사님들은 부족한 여종이 준비한 찬양을 따라 하고, 힘을 다해 기도한다. 기도회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수고했다는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 부끄럽고 송구스럽지만, 부족한 여종을 사용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

“아! 사랑은 순종이구나! 섬김은 눈물과 희생 그리고 정성이구나!”

누군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의 자그마한 자리를 힘써 지킬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순종과 눈물, 희생을 통해 Acts29의 비전을 써 가신다. 부끄럽고 무능한 여종을 당신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교회 구석구석에서 순종과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의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함께하기를 기도한다.



신앙에세이 김현실 목사(남양주 온누리교회)

why, how, what

어린 시절 나는 목적과 목표라는 말을 혼동했었다. ‘북한의 적화통일은 변함없는 목적이고,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 목표를 세운다’는 문장으로 그 뜻을 구별했던 기억이 난다. 요즘 목적이라는 단어가 새삼스럽게 다가왔다. 그 이유는 어느 강사가 왜(why) 그 일을 하고 있는지,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강조했기 때문이다.

TED(Technology, Entertainment, Design)라는 미국의 비영리 재단에서 운영하는 강연회 중에서 사이먼 시넥이라는 사람의 강연이 특히 유명하다. 그는 ‘why, how, what’을 주제로 인상적인 강연을 펼쳤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what)을 하고, 이를 위해 어떻게(how) 하느냐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왜(why) 그것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는 ‘왜’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원래 의도했던 대로 이루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왜 사는가? 살면서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가?” 이 물음을 새삼스럽게 고민해 보았다. 어린 시절 내 꿈과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는 일이 무엇일지를 생각했다. 그러다 갑자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에 대한 질문이 떠올랐다.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마 20:28)이라고 말하고 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나’인 것이다. 그것을 새삼 깨닫는 순간 나 자신이 매우 귀한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더욱 소중한 분이 되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내가 목적인 것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위해 떼쓰며 부르짖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언젠가 어느 학생에게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고 물었던 적이 있다. 그 학생은 “무엇을 할지 잘 모르겠지만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라고 대답했다. 돈이 목적이 되어 살아가는 학생의 삶을 상상해봤다. 이 학생이 교사가 되면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할까, 요리사가 된다면 어떤 재료를 선택해서 어떻게 음식을 만들까, 의사가 된다면 환자를 돈을 버

는 수단으로 보지 않을까.

예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우리 삶의 목적을 죽여가는 영혼을 살리는데 두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알리고, 예수님으로 인해 살아가야 한다.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딤후 6:10)라고 말하고 있다. 예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의 목적은 나와 같은 인간이다. 예수님의 목적인 인간이 돈 때문에 인간을 수단으로 삼고 있다.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의 몸마저 팔고 있다. 돈을 사랑하고 돈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악의 근원이고, 뿌리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때 기뻐하신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골 2:10).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골 1:6).

